

벚꽃 · 자전거의 환상적인 어울림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연계 '2025 옥정호 그란폰도 · 메디오폰도 대회' 성료... 800여명 참가

임실군이 지난 5일 벚꽃과 자전거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한 '2025 옥정호 그란폰도 · 메디오폰도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전국 자전거 동호인 8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옥정호와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추진된 전국 최상위 자전거대회로,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연맹(회장 유정환)이 주최 ·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임실군이 후원했다.

대회는 그란폰도(124km)와 메디오폰도(72km)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오전 8시 임실종합경기장을 출발해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 운암면 등 관내 · 외 11개 읍면을 경유하고 임실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진행됐다.

메디오폰도(72km)는 성수 조치삼거리, 장수 산저, 오수 상신촌, 삼계 학정, 덕치 화문삼거리, 청용 모래재를 넘어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했다.

그란폰도 코스는 총 124km로 임실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메디오폰도 코스의 반환점인 덕치 화문삼거리를 지나 정읍 산내면사무소, 운암 카페거리, 운암 소재지를 지나 임실종합경기장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다.

옥정호와 섬진강을 따라 조성된 명품 꽃길은 일상에 지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활력을 주고, 옥정호와 봄어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코스로 선정된 구간은 화려한 꽃들이 만개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상쾌한 바람을 느끼고,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리



임실군이 지난 5일 벚꽃과 자전거의 환상적인 어울림을 선사한 '2025 옥정호 그란폰도 · 메디오폰도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잡았다.

군은 이번 자전거대회를 앞두고, 전북경찰청 및 임실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회 주행코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

또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교통순찰차, 구급차, 교통유도요원(공무원 75명, 민간 41명)을 주요 교차로 및 교통 취약지에 배치해 차량과 자전거의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 유도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경기 구간 내 포스트, 잔석 정비 등 도로 환경 정비에 힘썼으며, 음면 이장회보 등을 통해 사전 대회 홍보에 주력한 결과 큰 사고 없이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경기가 열린 이날, 점심부터 임실읍 소재 임실시장 일대가 자전거를 실은 자동차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주요 음식점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찾아 이번 대회가 지역경제 활

성화에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심민 군수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정된 옥정호 · 섬진강의 벚꽃길에서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대비와 대회 준비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모든 자전거 애호가들이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고,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2025 소년체전 출전 티켓 거머쥔다

진안 유소년 승마단 임이윤, 전북 대표 선발

진안 용담승마클럽 유소년승마단(대표 이영래) 소속 임이윤 선수(사진)가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임이윤 선수(진안 주전중 2학년)는 지난 3월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입상하며 장애물 경기 3명, 마장미술 2명을 선발하는 도 대표 선수에 최종 선발돼 전국소년체전 출전 티켓을 거머쥔

게 됐다. 임이윤 선수는 3년 전인 초등학교 6학년에 처음 진안군 유소년 승마단에 지원해 그동안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 남다른 근성으로 대회 출전 때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영래 용담승마클럽 대표는 "진안군을 넘어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임이윤 선수가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더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미래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도에 최선을 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2020년 진안군 유소년승마단을 창단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대회참가비, 승마용품, 클럽전 등 유소년 승마 선수 양성 및 승마 산업 발전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5년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승마경기는 오는 5월 경남 상주 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 진흥 · 보급 '맞손'

태권도진흥재단, 카이스트와 협약... 장비 등 과학화 협력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카이스트(총장 이광형, KAIST)는 지난 7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카이스트 본원에서 태권도 진흥과 보급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태권도 장비 등의 과학화 및 자문에 대한 협력, △카이스트 내외국인 학생들의 태권도 수련과 체력 지원 등에 대한 협력 등을 갖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카이스트 교직원 및 학생들이 태권도원 방문 등을 통한 태권도 수련과 체력 기회 마련, 향후 태권도 장비 개발과 태권도원 내 과학화 체험 기구 구축 등에 있어 자문과 협력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전 세계 다양한 국적의 카이스트 학생들이 태권도를 체험하고 수련함으로써 태권도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카이스트의 첨단 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태권도 과학화를 촉진하여 국가 태권도 발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최근 카이스트는 전기차 조기 충전기술 개발과 손성된 시력 회복 등 실생활과 관련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글로벌 가치창출을 선도하는 카이스트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태권도 과학화와 보급에 한발 더 나아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식 기자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전주월드컵경기장도 점검 시급

전주월드컵경기장, 안전등급 'C등급' ... 구단 · 시설공단 '점검에 최선 다할 것'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홈 구장인 창원 NC 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로 인해 스포츠 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 지역의 유일 프로스포츠 구단 전북 현대 모터스의 홈 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따라 전북의 유일한 프로스포츠 구단인 전북 현대의 홈 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의 시설물은 정해진 시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 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해당 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은 A등급(우수)에서 E등급(불량)으로 분류된다.

지난 202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지만 전체적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주요부재에 내구성 ·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C등급(보통)을 받았다.

심각한 노후나 시설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지만, NC 파크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B등급을 받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주월드컵경기장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북 현대와 전주시설공단 등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전북 현대 구단 측에서 공단의 안전점검 용역 자료 등을 요청해왔다. 구단 측에서는 외부 인사를 불러 공단과 별도로 재차 점검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구단과 공단이 각각 안전점검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더욱 꼼꼼한 점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현대 관계자는 "연맹 측으로부터 점검 요청 공문을 받은 바는 있다. 다만 바로 추가적인 점검은 하기는 여러 여건 상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꼼꼼하게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뉴시스

